

제주 1차산업 조수입 2년 연속 5조원 돌파

작년 5조2797억원 집계, 전년비 1.3%↑...수산물·축산물이 성장 견인

제주지역 1차산업 조수입이 2년 연속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차산업 조수입이 5조27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차산업 조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2024년 5조2142억원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2022년과 2023년 1차산업 조수입은 각각 4조6421억원과 4조9749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1차산업 분야 중 수산물과 축산물이 선전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수산물 조수입은 1조5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뛰었다. 어선어업 생산이 호조를 보인 데다 주요 양식어종 생산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고 수산물 가공산업이 커진 결과다.

축산물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1조4208억원 조수입을 올렸다. 주요 축종의 경락 가격이 오르고 가금류 생산이 늘어난 데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조수입을 끌어올렸다.

감귤은 조수입 1조307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경기 둔화로 국내 과일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감귤은 완숙과 중심 출하와 대도시 소비지 홍보·판촉에 힘입어 3년 연속으로 조수입 1조3000억원대를 이어갔다. 기타 과수는 감귤에서 품종을 바꾸는 능가가 늘어나고 블루베리·망

고 등 고급 품종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6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발작물은 조수입 8694억원으로 전년보다 19.6% 줄었다. 2024년 산 가격이 좋아 생산량이 약 30% 늘어난 여파로 주요 월동채소 가격이 떨어진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1차산업 조수입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생산·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농가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영농을 확대해 생산·영농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현중 기자 tazan@samdailbo.com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 시동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회의실에서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올해 사업에는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센터, 세일건설(주),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공항공보안 제주지사,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등 도내 6개 사업장이 참여해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동참한다. '우리회사 조직문화 성장 지원사업'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 ▲감정노동자 안심 일터 조성 ▲장년고용 안정화 ▲워라벨 일터 조성 ▲노사상생 환경 구축 등 5개 분야 중 사업장이 희망하는 분야의 조직문화 성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공)

더 커지고 풍성해진 '푸파페 제주' 23일 개막

제주 농업과 미래 농식품산업을 한 자리에 모은 농촌융복합산업 박람회 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제2센터에서 '푸파페 제주(Food tech & Farming+@ JEJU Fair)'가 개최된다고 19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번호 (1233회)	
2 7 20 25 37 40 + 29	
1등	837,965,396원
2등	56,966,946원
3등	975,550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김동건 기자 kdg@samdailbo.com

제주DA 파트너스 원탁회의 본격 운영

제주지역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농업 소통 기구인 '제주DA 파트너스 원탁회의'가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오는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제주DA 파트너스 원탁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DA 어플리케이션(앱)은 기상·농업기술·경영정보 등 다양한 농업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디지털 농업 플랫폼이다.

원탁회의는 제주DA 앱의 현장 활용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해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의견수렴 창구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디지털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DA 파트너스 운영 대상을 6개 작목, 13개 읍·면으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노지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에 마늘과 양파를 추가하고, 권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200명의 파트너스를 구성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까지 권역별·작목별 회의를 총 6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samdailbo.com

창립기념일

20~22일 동남종합건설, 제주통역아학원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양질의 고객 서비스와 고객 만족 경영을 다짐한다.
※7월 27일~8월 2일 창립기념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 바랍니다. 삼다일보 경제부 064-757-3114.

“자타 공인 성실 우량업체 평가”

동남종합건설 창립 43주년

20일 창립 43주년을 맞는 동남종합건설(대표이사 고광민)은 도내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에서 상위권에 올랐으며,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일반·전문상호협력 우수업체에 지정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실 우량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공뿐만 아니라 경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락처=753-8181.



고광민 대표이사

“성인 전문 평생교육기관 활약 등 성장”

제주통역아학원 창립 38주년

오는 22일 창립 38주년을 맞는 제주통역아학원(원장 김효관)은 성인 대상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스페인어 과정은 물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과정도 개설해 성인 전문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약하는 등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단계별 학습 과정과 함께 다양한 시간대의 강의를 편성해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연락처=747-6969.



김효관 원장

관광 서비스 혁신역량 아카데미 참여 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오는 22일까지 '관광 서비스 혁신역량 아카데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도내 관광기업 및 사업체 6개사이며, 주요 교육 과정은 ▲고객 경험 관리를 통한 서비스 향상 교육 ▲서비스 매너 및 이미지 관리 ▲블랙박스수리 대응 전략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AI로 스마트한 업무 혁신 ▲AI 기반 서비스마케팅 등 AI 교육 과정도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 내 공지사항에 기재된 구글폼을 통해 지원신청서, 기업정보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광사업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한라당구재료상사

당구에 관련된 모든것!
한라당구재료상사와 상담하십시오

당구장 신설 및 인테리어 상담

- 중고 당구대 및 개인구 매입·판매
- 당구재료 도·소매 / 중고구 다량보유
- 외산당구대(대리점)취급 업체 (가브리엘, 까리노, 소렌소가드 외)

문의 제주시 아연로 455(오동동) **010-2040-8117**

정말! 억울하지요!!

돈잃고, 사람잃고..

빌려준 사람도 두 다리 쪽 뺄고 편히 주무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집행권원(판결문)있는 민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기타 등등..

세일신용정보(주)
(064)757-7770, FAX. 757-7769